

보도 일시	즉시 보도 가능	배포 일시	2022. 8. 31.(수) 18:00
담당 부서 <총괄>	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	책임자	과 장 서진희 (044-200-5610)
		담당자	사무관 황미혜 (044-200-5622)

경남 통영시 사랑도 해역, 적조 주의보 확대 발령

- 현장대응반 운영으로 피해 예방 총력 대응 -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8월 31일(수) 18시부터 전남 여수시 돌산도에서 경남 남해군 해역에 내려진 적조 주의보 해역을 경남 통영시 사랑도 해역까지 확대 발령하였다.

- * 특보 발령 현황 : (8. 26.) 주의보 /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~ 여수시 돌산도
- (8. 30.) 경보 / 전남 고흥군 지죽도 ~ 여수시 돌산도
- (8. 30.) 주의보 / 전남 여수시 돌산도 ~ 경남 남해군
- (8. 31.) 주의보 / 전남 여수시 돌산도 ~ 경남 통영시 사랑도

8월 31일(수) 16시 기준, 국립수산물과학원 적조생물 예찰 결과 적조 경보 해역은 코클로디니움*이 최대 3,550개체 관찰되었고, 경남 통영시 사랑도 해역에서 최대 270개체가 관찰됨에 따라 적조주의보 해역을 확대 발령하게 되었다.

- * 코클로디니움(*Cochlodinium polykrikoides*) : 바다에 분포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여름철에 적조를 일으키며, 어류의 아가미에 부착해 어류의 산소 교환 능력을 감소시켜 어류가 폐사되기도 함

- ** 위기경보 단계 : **(주의)** 적조예비주의보(10개체/mL ↑) → **(경계)** 적조주의보(100개체/mL ↑) → **(심각)** 적조경보(1,000개체/mL ↑)

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“당분간 적조 발생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초동방제 준비를 철저히 하고, 세심한 양식어장 관리가 필요하다.”라며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비를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어촌양식책관실 어촌양식정책과	책임자	과 장 서진희 (044-200-5610)
		담당자	사무관 황미혜 (044-200-5622)
	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	책임자	과 장 정래홍 (051-720-2210)
		담당자	연구사 손문호 (051-720-2230)
	국립수산과학원 양식연구과	책임자	과 장 황형규 (051-720-2410)
		담당자	연구사 최 진 (051-720-2431)



